

SERI 경제 포커스

2010. 5. 18. (293)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목차

FOCUS	1
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2. 위기의 정치경제적 원인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2
경제일지	13
경제통계	16

작성 : 박 준 수석연구원
(jpark@seri.org)
02-3780-8526

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그리스 재정문제로 최대 위기를 맞은 유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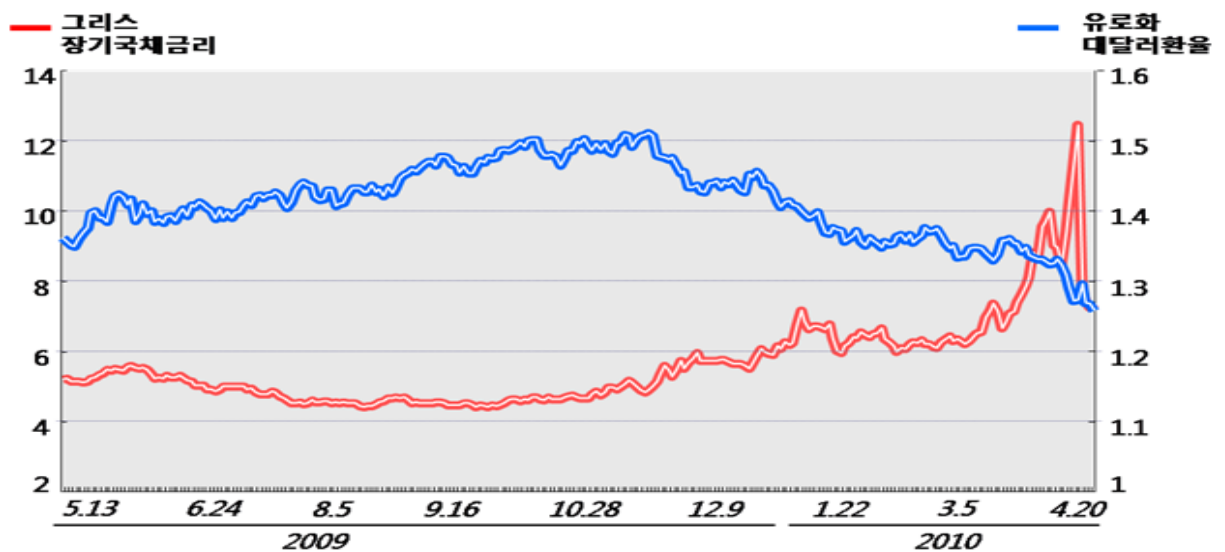
□ 그리스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이 어려워지자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¹⁾

- 2009년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수준은 각각 13.6%와 115.1%로 유로존 최고 수준
- S&P는 2010년 4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인 'BB+'로 조정

□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로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그리스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2009년 말 이후 유로화 약세가 지속
 - 그리스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유로화의 對美 달러 환율은 2010년 5월 7일 현재 2009년 최고점(11월 25일) 대비 15.5% 하락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유로화 對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European Central Bank, Statistics.

¹⁾ Munchau, W. (2010. 3. 28.). Europe Has Resolved Nothing Over Greece. *Financial Times*.

일시 통합된 그리스 재정위기

- 2010년 5월 EU와 IMF의 공동 구제지원 발표로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었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상존
 - 5월 2일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해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5월 10일에는 유로화 안정을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에 합의
 - 그리스의 10년 만기 장기국채금리는 5월 7일 12.5%에서 5월 10일 7.8%로 하락
 - 그리스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안정성장협약(Stability & Growth Pact)」²⁾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낮추려면 고통스런 디플레이션 정책이 불가피
 - 그리스 경제가 2010~2012년 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
 -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 등 남부 유로존 국가들이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위해 수년 내에 유로화를 포기할지 모른다고 전망³⁾

-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EU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방만한 재정운용을 야기한 그리스 내부의 문제와 함께 EU가 그리스 사태 발생 시 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실패했는지 EU 거버넌스의 문제도 분석
 - EU 거버넌스는 EU 회원국들의 정책을 조율하고 EU 차원의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와 절차
 - 또한 EU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존해 그리스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²⁾ 1997년에 EU가 유로화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장치로서 GDP 대비 3%의 재정적자와 60%의 국가부채를 기준선으로 설정했으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벌금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

³⁾ Roubini Says Greece, Other 'Laggards' May Exit Euro. (2010. 5. 10.). *Bloomberg*.

2. 위기의 정치경제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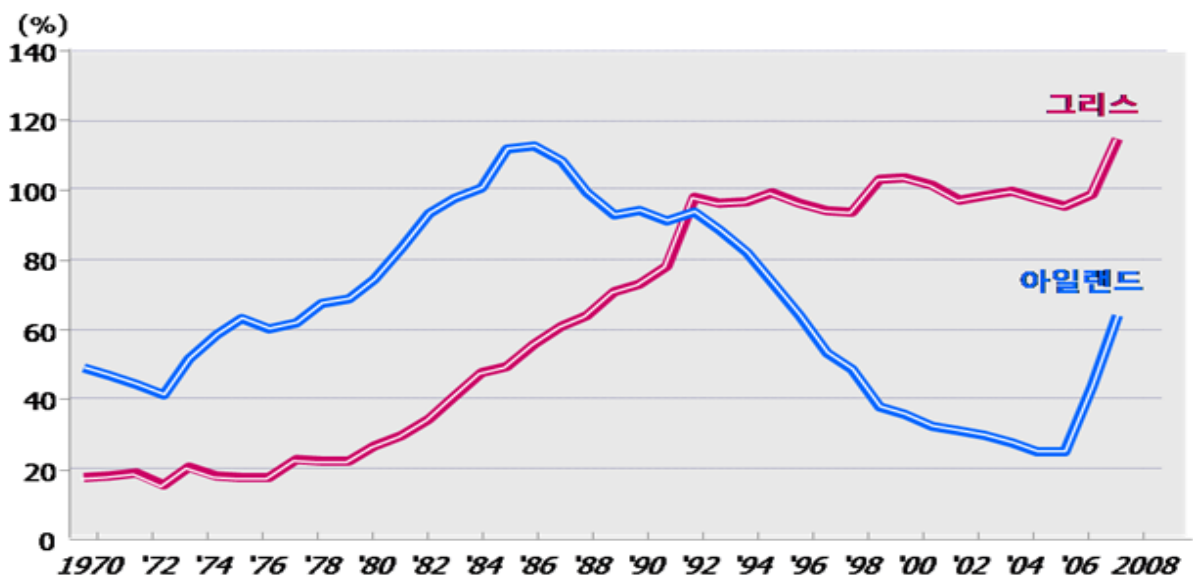
1) 그리스 국내 요인

경제적 원인: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

□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

- 그리스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1980년 22.3%에서 2000년 103.4%로 증가하여 유로화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
 - 그리스 정부가 재정통계를 조작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속여 2001년 유로화에 가입
-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들어 재정적자가 급증한 아일랜드와 차이
 - 아일랜드도 한때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100%를 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부채를 성공적으로 조정해 재정안정화를 시현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가부채 추이



주: GDP 대비 수치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Spring). Statistical Annex of European Economy.

- 2001년 유로화 가입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
 - 2000~2008년 사이 그리스의 단위노동비용⁴⁾이 25.0% 증가
 - 반면,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0.2% 감소
 - 그리스는 유로화 가입 이후 환율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단위노동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수출 경쟁력 약화로 전가
 - 2000~2008년 그리스의 연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2.3%로 1990~1999년 평균 1.8%에 비해 급증⁵⁾

정치적 원인 ①: 포퓰리즘에 의해 경제가 왜곡

- 20세기 그리스는 남미처럼 잦은 政變으로 인해 정치불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흡
 - 터키 오스만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을 반복했고, 1967~1974년 기간 중에는 군부 독재정권을 경험
 - 2차 대전 이후부터 1974년 사이에 대부분 총리들의 임기가 1년 이내로 단명
- 1975년 민주화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 유착 관계로 인해 민주주의가 변질
 - 집권당은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산업 및 농업 보조금, 고용 보호,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
 - 1981년에 처음 집권한 사회당(PASOK)은 그리스 공무원노조(ADEDY)와 그리스 노동총연맹(GSEE)의 지도부를 당에 포섭하는 전략을 추구⁶⁾

⁴⁾ 상품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된 노동비용으로, 총 노동비용을 실질GDP로 나누어 계산 (Source: OECD, Statistics.)

⁵⁾ European Commission (2010. Spring). Statistical Annex of European Economy.

⁶⁾ Tsakalotos, E.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Democratic Economic Policies: The PASOK Experiment in Gree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4(1), 130.

-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대가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사례: 그리스의 교원 수

▷ 그리스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의 질이 가장 우수한 핀란드보다 적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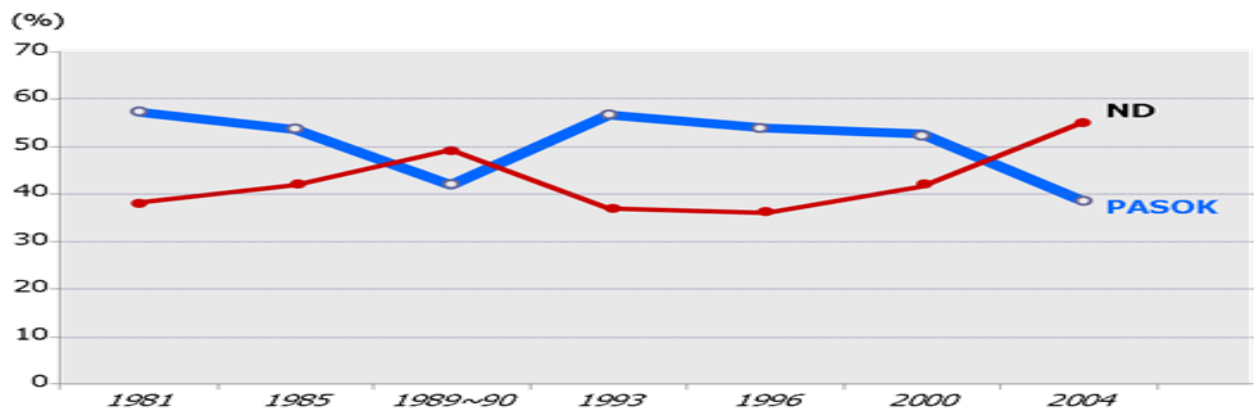
- 2007년 그리스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0.1명과 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소 (핀란드의 경우 15.0명과 13.1명)
- 그리스 정부가 초·중등교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임용했기 때문

자료: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9*.

□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左右 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지연

- 사회당은 1981~2004년 중 단 4년(1989~1993년)을 제외하고 줄곧 단독집권
 - 1989~1993년 기간에도 우파 新민주당(ND)이 단독집권에 실패하여 사회당 및 극좌 정당인 좌파진보연합(SYN)과 연정을 구성
- 1990년대 중반 이후 新민주당의 약진으로 좌우파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개혁정책들이 지연
 - 2000~2007년 기간 중 그리스는 주력산업인 관광, 해운, 선박업 등의 호황으로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기록해 개혁 필요성이 반감

그리스 兩大 정당의 의석점유율 추이



주: '1989~1990'은 1989년 6월과 1990년 4월 사이에 실시된 3차례 총선의 평균치

자료: Elections in Greece. (n. d.). *Wiki*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reece>(2010. 5. 13.)

정치적 원인 ②: 정부의 갈등조정능력 부족

□ 내각의 응집력 부족으로 개별 부처 간 예산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

- 1975~1996년 기간 중에는 그리스 재무성이 정부의 예산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내각이 공동으로 예산안을 처리⁷⁾
 - 국방, 교육, 보건 등 주요 부처들의 과도한 예산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
- 유로화 가입을 위해 1997년 재무성의 예산권한을 강화했으나 국가부채는 1996년에 이미 GDP 대비 100%에 육박

□ 2009년 말 재정위기 발생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실패

-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정부의 재정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발생
 - 5월 5일에는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아테네 시내 은행에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 3명이 사망
- 사회당 정부는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IMF에 대한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채질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⁸⁾

2) EU 거버넌스의 취약성

□ 유로존의 통화정책 권한은 유럽중앙은행(ECB)에 귀속되었으나 재정정책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주권적 사항

- 유로존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비대칭적 충격(Asymmetric Shock)의 위험이 상존

⁷⁾ 당시 그리스 재무장관은 내각에서 서열 10~11위에 불과 (Hallerberg, M. (2004). *Domestic Budgets in a United Europe*. Cornell University Press, p. 110.)

⁸⁾ Backlash Grows over Greek Rescue Plan. (2010. 4. 25.). *Financial Times*.

- EU의 자체 예산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가 비대칭적 충격에 대응해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 단기적 재정이전(Fiscal Transfer)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
 - 2010년도 EU 자체 예산은 27개 회원국 총 GNI의 1.2%에 불과⁹⁾
- 디폴트 위기에 몰린 회원국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
 - 유럽중앙은행法은 유럽중앙은행이 개별 회원국에게 IMF식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리스본 조약 제125조는 EU와 다른 회원국들에 의한 구제지원도 금지

실질적 단일통화권 형성에 150년이 걸린 미국

- ▷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1788년에 단일통화를 채택했으나 경제구조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
 - 19세기 농업에 특화했던 남부와 서부 지역은 농산물 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북동부 지역은 지역별 인플레이션 정책이 금본위제도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해 반대
- ▷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제도, 연방보조금 등 재정이전체도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실질적 단일통화권으로 정착

자료: Rockoff, H. (2000). How Long Did It Take the United States to Become an Optimal Currency Area?(NBER Historical Working Paper No. 124). NBER.

3) 域內 경제대국 독일의 소극적 대응

- 개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구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리더십이 필요

⁹⁾ European Commission (n. d.). *EU Budget in Detail*.

<http://ec.europa.eu/budget/budget_detail/current_year_en.htm>(2010. 5. 14.)

- EU에는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그리스 지원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
 -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¹⁰⁾를 극복하고 회원국들 간 공조를 통해 그리스를 지원하려면 주요국의 리더십이 필수
 - 개별 회원국들이 그리스 지원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유로화의 안정이라는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려고 한 결과 국가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국내 정치사정으로 그리스 구제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함으로써 공동 대응이 지연
- 독일 메르켈 정부는 그리스 구제지원에 반대하는 국내여론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州선거(5월 9일)를 의식해 그리스에 대한 조기 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
 - 독일 국민의 61%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¹¹⁾
 - NRW 州선거는 독일 기민당-자민당 연립정권이 패배할 경우 독일 연방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였음
 -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 6개월 후인 2010년 5월 초에야 비로소 EU 차원의 지원에 합의
 - 독일은 IMF를 끌어들이함으로써 그리스 지원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덜 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유로체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

3. 시사점

그리스는 유로화 고수를 위해 환골탈태가 필요

- 그리스는 디폴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EU 내 정치적 위상 하락을 고려할 때 유로화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¹⁰⁾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¹¹⁾ Germans Oppose Greek Aid, Poll Shows. (2010. 3. 21.). *Financial Times*.

-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통화정책의 자율성 회복,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경기부양 수단 확보가 가능
- 그러나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할 경우 2001년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듯 변동환율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투기와 자본유출이 발생해 통화 가치의 폭락과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¹²⁾
-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EU의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약화되고 EU 내 이등국가로 전락해 향후 유럽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을 내포

2001년 아르헨티나 폐소화 위기

- ▷ 아르헨티나는 2001년 재정위기로 對달러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이후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아 폐소화 가치가 美 달러화 대비 70% 가까이 폭락
- ▷ 아르헨티나는 총 외채의 75%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그 여파로 국가신용등급이 123개국 중 117위로 강등되어 아직도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

자료: Dadush, U. (2010. 3.). Greek Crisis: A Dire Warning from Argentina and Latv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으려면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실추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불가피
- 재정긴축, 세무행정 강화, 노동비용 축소 등 재정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

그리스의 개혁 추진 역량을 감안한 EU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위기의 원인을 그리스의 대내적 불균형으로만 보는 독일과 IMF의 접근방법은 그리스 재정개혁의 실패 위험을 도리어 가중

¹²⁾ Eichengreen, B. (2007). The Breakup of the Euro Area(NBER Working Paper 13393). NBER.

- 그리스 정부는 대외불균형 조정에 필요한 환율정책수단을 상실한 가운데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그리스 국민의 35%만이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¹³⁾
 - 재정위기를 유발한 그리스 국내 정치구조의 문제가 상존한 가운데 위로 부터 추진하는 재정개혁은 선거에 의존하는 민주정부에 부담으로 작용
 - 과거 포퓰리즘 정치의 수혜자였던 집단들이 일제히 개혁에 저항할 경우 정부 내 개혁 주도 세력이 소수로 전락해 재집권이 어려워질 우려
- 그리스의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
- 그리스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반감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
 -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거나 2014년으로 정한 재정 정상화 목표연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

-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東·西獨 통일, 수출시장 확대 등을 얻었음
- 1989년에 독일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창설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프랑스로부터 독일 통일에 대한 승인을 확보¹⁴⁾

¹³⁾ Papandreou Braced for Fresh Fury. (2010. 5. 1.). *Financial Times*.

¹⁴⁾ Katzenstein, P. (1997). United Germany in an Integrating Europe. *Current History*, March, 116-123.

- EU는 독일에게 가까운 수출시장이 되었고, 특히 유로체제 출범 후 독일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
 - 2000~2008년 사이 독일은 연평균 GDP 대비 4.4%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유로존 16개국 평균 = 0.3%)
- 독일이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
 -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PIGS¹⁵⁾국가들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이 와해되고 유럽통합은 후퇴
 - 독일이 미국, 중국과 더불어 국제질서의 주축이 되려면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해야 함
 - EU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GDP는 2008년 현재 미국의 20.2%, 중국의 36.6%에 불과¹⁶⁾
 - 독일정부는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EU 차원의 재정 이전장치를 도입하고, EU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EU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以上〉

¹⁵⁾ 재정난이 심각한 남부 유로존 국가들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킴

¹⁶⁾ IMF (2010). World Economic Outlook.

금리 :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인상 우려 확산으로 상승

	5.10	5.11	5.12	5.13	5.14
회사채(AA-)	4.46	4.39	4.51	4.53	4.52
회사채(BBB-)	10.54	10.47	10.57	10.59	10.58
국고채(3년물)	3.71	3.64	3.77	3.79	3.78
콜금리	2.03	2.01	2.02	2.02	2.02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증개.

환율 : 달러는 유로화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원화 대비 강세 후 약세 전환

	5.10	5.11	5.12	5.13	5.14
원/달러	1132.1	1135.7	1143.8	1128.0	1130.5
엔/달러	93.31	92.71	93.20	92.70	92.49
달러/유로	1.2782	1.2655	1.2622	1.2530	1.2363
원/100엔	1213.33	1225.07	1227.32	1216.83	1222.36

자료 : 한국은행 ECOD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유럽 및 중국 긴축우려로 하락 후 유럽 재정불안 완화에 따른 글로벌 증시 호조로 상승

구 분		5.10	5.11	5.12	5.13	5.14
거래소	KOSPI(p)	1677.63	1670.24	1663.03	1694.58	1695.63
	거래량(만주)	38,350	45,706	45,319	40,038	43,290
	시가총액(조원)	898	894	913	931	932
	외국인순매수(억원)	-3,279	160	-4,050	683	-2,064
코스닥지수(P)		512.16	512.22	512.13	522.54	524.98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5. 10 ~ 5. 14)

<p>5. 10. (월) · 미국: 3월 소비자신용 전월대비 20억 달러 증가, FRB</p>
<p>5. 11. (화) · 미국: 4월 고용동향지수 전월대비 0.8p 상승한 94.7, Conference Board</p>
<p>5. 12. (수) · 미국: 3월 신규고용 전월대비 424만 명 증가, 노동부</p>
<p>5. 13. (목) · 미국: 4월 중소기업 낙관지수 전월대비 3.8p 증가한 90.6, 전미독립기업협회</p>
<p>5. 14. (금) · 미국: 3월 무역수지 적자 전월대비 2.5% 확대된 404억 달러, 상무부</p>

<p>5. 10. (월) · 유로지역: 유로화의 신뢰회복을 위해 7,5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 EU 재무장관회의</p>
<p>5. 11. (화) · 유로지역: 1/4분기 GDP 전분기대비 0.2% 성장, Eurostat</p>
<p>5. 12. (수) · 독일: 1/4분기 GDP 전분기대비 0.2% 성장, Eurostat</p>
<p>5. 13. (목) · 유로지역: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Eurostat</p>
<p>5. 14. (금) · 그리스: 1/4분기 GDP 전분기대비 -0.8% 성장, Eurostat</p>

<p>5. 10.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기준금리를 0.1%로 동결, BOJ
<p>5. 11.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009회계연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재무성
<p>5. 12.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3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4.4p 상승한 102.8, 내각부
<p>5. 13.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4월 경기체감지수 전월대비 2.4p 상승한 49.8, 내각부
<p>5. 14.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009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 전년대비 26.9% 확대된 15.7조 엔, 재무성

<p>5. 10.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 증가로 2020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 사라토가 캐피털
<p>5. 11.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1/4분기 경제성장률 5.7%로 올해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 통계청
<p>5. 12.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인플레이 억제 목표율 8%로 1%p 상향조정, 베트남 정부
<p>5. 13.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기준금리 현행 2.25%에서 2.50%로 0.25%p 추가 인상, 중앙은행
<p>5. 14.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전월대비 2.3p 감소한 75.0 UTCC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4	4.6	43.3	6.1	3.6	3.7	9.5	4.6	6.1	4.7	0.06	0.04	895.9
2005	4.0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2	43.8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9. 4			1.5	3.6	3.8		10.6	7.7	5.68	0.03	0.02	1,369.4
5	-2.2	48.9	-1.3	2.7	3.8	-2.0	9.9	7.3	5.16	0.04	0.03	1,395.9
6			-3.1	2.0	3.9		9.6	7.0	5.21	0.02	0.01	1,390.1
7			-3.8	1.6	3.7		9.7	7.7	5.46	0.02	0.01	1,557.3
8	0.9	52.6	-3.0	2.2	3.7	-1.4	10.0	8.0	5.74	0.02	0.01	1,591.9
9			-2.6	2.2	3.4		10.0	7.7	5.58	0.02	0.01	1,673.1
10			-3.1	2.0	3.2		10.5	7.8	5.60	0.02	0.02	1,580.7
11	6.0	53.2	-0.4	2.4	3.3	3.6	9.7	7.6	5.43	0.04	0.03	1,555.6
12			1.8	2.8	3.5		9.3	8.1	5.35	0.03	0.03	1,682.8
2010. 1			2.8	3.1	5.0		9.3	8.1	5.40	0.03	0.03	1,602.4
2	7.8	51.9	2.4	2.7	4.9	..	9.4	8.6	5.32	0.03	0.03	1,594.6
3			2.6	2.3	4.1		9.3	8.9	5.02	0.02	0.02	1,692.9
4	3.2	2.6	3.8	4.69	1,741.6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4	95.8	100.3	1.1	-4.8	5.3	6.3	-3.9	80.1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0	7.9	-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2	99.9	4.0	3.4	7.9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1.9	100.6	5.1	0.8	8.5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3.1	99.3	1.0	0.5	2.2	-12.8	-9.0	77.2	3.0	5.1	-3.4	24.8
2009. 3	113.5	94.9	-5.2	-1.7	-5.2	-25.5	-14.9	70.3	-11.3	-21.3	-26.5	31.6
4	115.4	96.1	-4.2	-1.2	-4.2	-27.4	-10.7	72.4	-8.8	-12.7	-24.3	13.2
5	117.6	96.5	1.7	2.2	0.2	-25.4	-17.9	73.6	-9.6	-13.2	-22.7	11.9
6	120.3	97.8	7.6	0.3	-4.9	-2.0	22.7	76.6	-1.3	2.6	-11.7	19.9
7	122.1	98.4	1.2	1.0	-5.5	6.1	-1.8	78.7	0.7	13.1	20.7	15.8
8	123.2	98.7	0.5	4.7	-2.4	-19.6	-27.0	77.7	1.0	21.0	-2.3	11.4
9	123.9	98.9	6.7	6.4	-2.1	26.5	55.3	79.9	11.5	23.3	34.9	31.7
10	124.7	98.9	9.8	9.4	5.3	-7.9	28.8	77.3	0.5	36.2	-14.2	-3.5
11	126.1	99.0	9.7	3.2	-1.3	56.2	78.8	78.2	18.8	72.3	15.4	-0.1
12	127.0	98.9	12.7	14.7	5.4	21.2	-19.6	79.6	36.0	109.0	58.9	-3.3
2010. 1	127.4	99.3	6.9	6.0	-9.3	11.2	17.1	78.9	38.9	66.7	78.8	10.0
2	127.1	100.0	13.1	16.3	29.1	-3.1	-6.7	80.4	19.5	63.8	29.5	-11.8
3	127.2	100.5	9.7	5.6	3.5	23.0	-25.3	82.2	23.2	64.6	45.1	-16.2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6,599	199,066	1,043.8	1,012.07	1,723	1,167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5,776	5,669	-16,671	5,107	-50,933	-10,595	-15,368	201,223	1,257.5	1,393.89	3,779	-326
2009. 4	4,274	6,105	-1,173	-803	2,193	112	7,133	212,478	1,348.0	1,382.92		
5	3,443	4,872	-1,524	390	6,708	-575	4,264	226,766	1,272.9	1,314.10	3,786	-64
6	5,381	6,599	-1,526	706	-219	290	5,344	231,735	1,284.7	1,336.28		
7	4,420	6,115	-1,898	511	2,201	-1,324	7,940	237,510	1,240.5	1,299.16		
8	1,922	3,320	-1,803	618	5,297	-276	4,064	245,459	1,244.9	1,332.80	3,974	30
9	4,054	5,269	-1,633	562	6,902	-538	7,911	254,247	1,188.7	1,318.80		
10	4,757	5,675	-1,313	559	1,583	-509	6,131	264,187	1,200.6	1,312.63		
11	4,278	5,842	-1,663	390	1,544	-2,835	3,389	270,892	1,167.4	1,348.27	4,019	152
12	1,522	4,023	-2,799	699	1,639	-1,367	975	269,995	1,167.6	1,282.82		
2010. 1	-631	1,376	-2,164	465	4,467	-1,680	152	273,694	1,156.5	1,287.00		
2	168	1,558	-1,778	548	251	-764	3,126	270,660	1,158.4	1,299.31
3	1,690	4,359	-2,099	-257	1,124	-202	7,721	272,331	1,130.8	1,217.68		
4	278,873	1,115.5	1,186.77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5	3.1	3.3	3.4	5.1	8,923	16,832	-7,487	4.25	10,717.50
2006	2.7	2.3	3.2	4.6	10,158	18,631	-8,035	5.25	12,463.20
2007	2.1	1.5	2.9	4.6	11,384	19,694	-7,266	4.25	13,264.80
2008	0.4	-2.2	3.8	5.8	12,770	21,172	-7,061	0.125	8,776.40
2009	-2.4	-9.7	-0.3	9.3	10,464	15,635	-4,339	0.12	10428.0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2005	1.9	1.3	-0.3	4.4	6,566	5,688	1,657	0	1,649.7
2006	2.0	4.4	0.3	4.1	7,525	6,716	1,704	0.25	1,681.0
2007	2.3	2.9	0.0	3.8	8,393	7,314	2,110	0.50	1,475.6
2008	-0.7	-3.4	1.4	4.0	8,105	7,889	1,571	0.10	859.2
2009	-5.3	-22.4	-1.1	5.4	5,418	5,138	969	0.10	907.5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1.7	1.1	2.2	9.0	30,065	29,131	457	2.25	3,578.9
2006	2.9	3.8	2.2	8.3	33,935	33,510	500	3.50	4,119.9
2007	2.7	3.2	2.1	7.5	40,006	39,167	601	4.00	4,399.7
2008	0.6	-2.1	3.3	7.5	43,963	44,048	-1093	2.50	2,451.5
2009	-4.1	-10.3	0.3	9.4	34,323	33,652	-614	1.00	2,966.2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0.8	2.9	1.9	10.7	7,880	6,446	1,139	2.32	5,408.3
2006	3.0	5.8	1.8	9.8	9,042	7,580	1,505	3.48	6,596.9
2007	2.5	5.9	2.3	8.4	9,871	8,005	1,931	3.66	8,067.3
2008	1.3	0.0	2.8	7.3	10,057	8,413	1,652	0.86	4,810.2
2009	-5.0	-16.1	0.2	7.5	8,175	7,027	1,110	0.30	5,957.4

주: 1) 3개월 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5	2.2	-1.3	2.0	4.8	2,116	2,802	-328	4.50	5,618.8
2006	2.9	0.0	2.3	5.4	2,436	3,200	-438	5.00	6,220.8
2007	2.6	0.3	2.3	5.3	2,208	3,106	-377	5.50	6,456.9
2008	0.5	-3.1	3.6	5.6	2,516	3,450	-220	2.00	4,434.2
2009	-4.9	-10.3	2.2	7.6	2,266	3,073	-178	0.50	5,412.9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1.9	0.2	1.9	9.3	3,541	3,766	-74	2.38	4,715.2
2006	2.2	1.3	1.9	9.2	3,871	4,173	-88	3.53	5,541.8
2007	2.3	1.2	1.6	8.4	3,995	4,399	-190	3.95	5,614.1
2008	0.4	-2.4	3.2	7.8	4,088	4,677	-442	1.87	3,218.0
2009	-2.2	-11.9	0.1	9.5	3,384	3,860	-434	0.37	3,936.3

주: 1) 3개월 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4.7	4.6	2.3	4.1	1,985	1,790	176	2.25	6,548.34
2006	5.4	6.2	0.6	3.9	2,238	1,996	263	2.75	7,823.70
2007	6.0	5.7	1.8	3.9	2,465	2,161	330	3.38	8,506.28
2008	0.7	-1.8	3.5	4.1	2,549	2,364	251	2.00	4591.22
2009	-1.9	-8.1	-0.9	5.8	2,034	1,733	391	1.25	8,188.1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1.9	0.2	1.9	9.3	3,541	3,766	-74	2.38	4,715.2
2006	2.2	1.3	1.9	9.2	3,871	4,173	-88	3.53	5,541.8
2007	2.3	1.2	1.6	8.4	3,995	4,399	-190	3.95	5,614.1
2008	0.4	-2.4	3.2	7.8	4,088	4,677	-442	1.87	3,218.0
2009	-2.2	-11.9	0.1	9.5	3,384	3,860	-434	0.37	3,936.3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